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
KCCI Economic Research Institute

대한상의 경제 인사이트

vol. 41 2026. 6. 11.

생성형 AI 활용의 대-중소기업 격차: 역량과 조직환경의 역할

김용미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 연구위원(ymkim117@korcham.net)
이창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cklee@kdischool.ac.kr)

생성형 AI(Generative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 규모에 따른 도입 격차가 새로운 구조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임금근로자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소기업 간 생성형 AI 활용 격차의 실태와 그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생성형 AI 활용자 비율은 대기업 66.5%, 중소기업 52.7%로 13.8%p의 격차가 확인되며, 이는 사용 빈도의 차이를 넘어 조직 전략 · 지원 체계 · 업무환경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생성형 AI 활용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 기업의 AI 권장 태도, 보조금 지원 여부가 활용 여부와 강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업 규모와 생성형 AI 활용 간의 연관성은 조직 지원 및 개인 역량 변수를 함께 고려할 때 13.8%p에서 4%p 수준으로 줄어들어, 관찰된 격차의 상당 부분이 정책적 개입을 통해 완화 가능한 영역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역량 강화 및 취약계층 · 지역 격차해소, 중소기업 생성형 AI 도입 전략 수립 지원, 생성형 AI 친화적 업무 및 생산성 전환 환경 조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언한다.

Ⅰ. 서론

□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과거 컴퓨터 ·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터넷 등의 범용기술(GPT)들을 능가하는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실험연구들을 통해 상당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확인되고 있음.**

○ 2024년 말 기준 미국의 18~64세 성인 중 약 45%가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PC · 인터넷 등 동일한 단계에서 보였던 확산 속도를 상회하는 수준임(Bick, Blandin, and Deming, 2026).

○ 다수의 현장 · 실험 연구는 생성형 AI 활용이 작업 완수시간 단축, 산출물 품질 향상, 저숙련자의 성과 제고 등 유의한 생산성 효과를 가져옴을 보고함(Brynjolfsson and Raymond, 2025; Noy and Zhang, 2023; Peng et al., 2023; Cui et al., 2026; Dell'Acqua et al., 2026).

* 본 자료는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대한상공회의소 및 경제연구원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또한, AI(생성형 AI 포함) 도입은 국가 · 지역 · 업종 · 기업 규모에 따라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구조적 격차를 따라 분절화(fragmentation)의 징후가 가시화되고 있음(Kergroach and Héritier, 2025).**

○ AI 기업 활용에 관한 OECD/Eurostat 통계에 의하면, 덴마크 · 스웨덴 · 핀란드(24~28%) 및 벨기에(25%) 등 유럽 상위 채택국들은 선도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2022년 28%를 기록하며 선도국 그룹에 진입

○ AI 기술의 선점은 '데이터 축적 → AI 성능 향상 → 활용 확대'의 선순환 메커니즘을 통해 강화되며, 후발 주자의 추격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구조

□ **중소기업(SME)은 OECD 경제권 전체 기업의 99% 이상, 민간 부문 고용의 60%를 차지하는 노동시장의 핵심 주체(OECD, 2025a)**

○ 한편, 중소기업은 디지털화와 첨단기술 도입에서 대기업에 일관되게 뒤처지고 있으며, 숙련 격차(skill gaps)에 특히 취약(Bianchini and Lasheras Sancho, 2025; OECD, 2024; OECD, 2025a에서 재인용)

□ **향후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성형 AI 도입 및 활용 역량(인재 · 업무환경) 격차가 지속 · 심화될 경우, 이는 중소기업 및 종사자의 생산성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와 장기 잠재성장률을 제약할 수 있음.**

○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생성형 AI의 특성상 초기 도입 비용이 낮고 구독형 서비스 형태로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빠르게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며(OECD, 2025a), 미국 BTOS 자료 분석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AI 활용률 격차가 기존 IT 확산 주기보다 빠르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SBA Office of Advocacy, 2025)

□ **대-중소기업 간 생성형 AI 활용 격차의 실태와 생성형 AI 활용의 결정 요인—특히 조직환경 · 지원 체계 · 개인 역량의 매개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

□ **이 연구는 한국의 대-중소기업 간 생성형 AI 활용 격차의 실태와 생성형 AI 활용의 결정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한상의 경제연구원(구 SGI)과 이창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공동으로 설계 · 진행한 임금 근로자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

○ 전국 만 20세 이상 임금근로자를 모집단으로 3,000명을 목표로 조사, 최종 유효 표본은 2,992명

- 조사기간: 2025년 09월 29일~10월15일
- 마크로밀 엠브레인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웹(Web) 조사방식으로 실시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1.79%p

○ 설문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창근 · 김용미(2026)를 참조

○ 근로자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생성형 AI 활용 패턴(활용 여부 · 빈도 · 용도 등), 활용 정책, 업무 환경 등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실태를 파악

○ 대기업 근로자는 설문조사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선택한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는 300인 미만을 선택한 근로자로 구분

- 표본 구성: 대기업 근로자 약 26%, 중소기업 근로자 약 74%

○ 근로자의 생성형 AI 활용 여부와 체계적으로 연관된 요인을 회귀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

□ 분석 결과, 격차는 단순한 사용 빈도의 차이를 넘어 조직 전략 · 지원 체계 · 활용 방식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상당 부분은 정책적 개입이 가능한 영역에 놓여 있음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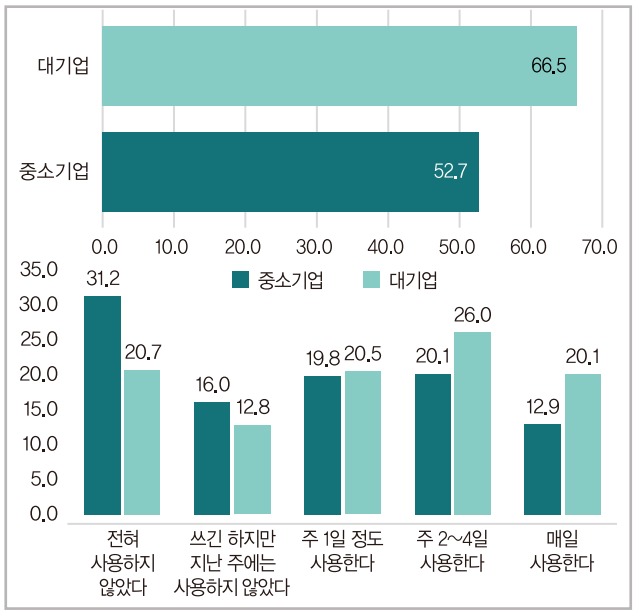
Ⅱ. 생성형 AI 활용과 생산성 측면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

□ 주 1회 이상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근로자 비율은 대기업(300인 이상) 66.5%, 중소기업(300인 미만) 52.7%로, 대기업이 13.8%p 높음.

○ 생성형 AI 미활용자(“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비율은 중소기업(31.2%)이 대기업(20.7%) 대비 약 1.5배 수준

○ 전반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임.

[그림 1] 생성형 AI 활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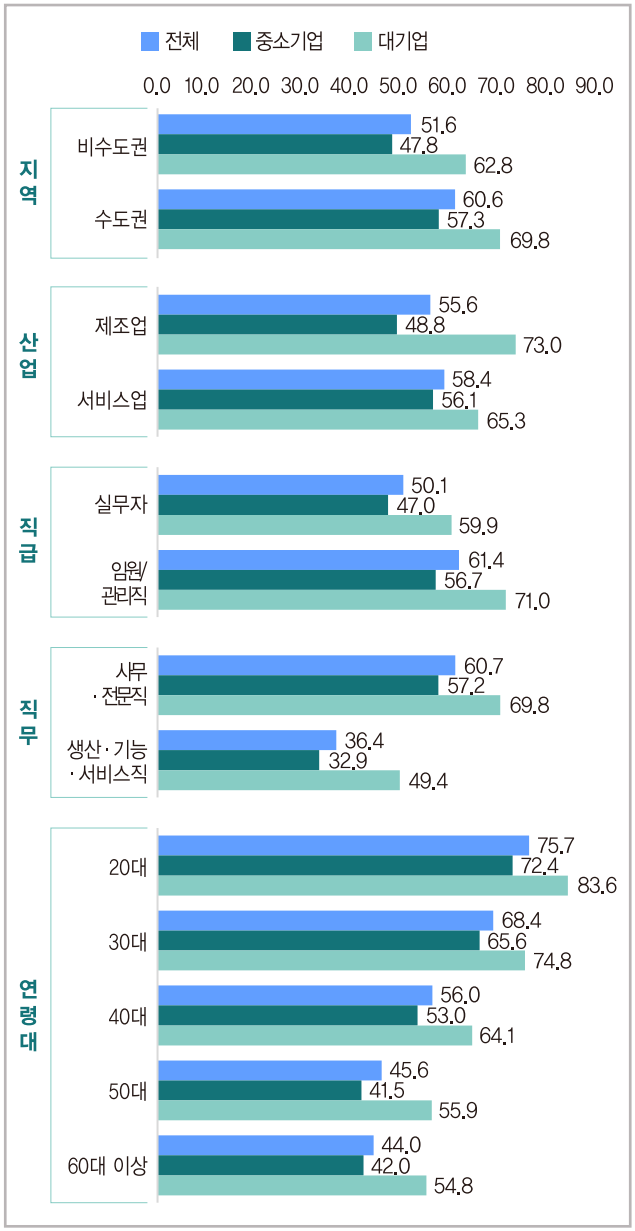


자료: 이창근 · 김용미(2026)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저자작성

□ 지역별 · 산업별 · 직급별 등으로 나눠 생성형 AI 활용률(생성형 AI를 업무에 주1회 이상 활용)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

○ 중소기업에서는 지역 간 격차(수도권 57.3% vs 비수도권 47.8%)가 대기업보다 더 크게 나타나,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생성형 AI 활용의 사각지대일 수 있음.

[그림 2] 집단별 AI 활용률 비교 (단위: %)



자료: 이창근 · 김용미(2026)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저자작성

○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다소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특히 제조업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24.2%p로 가장 크게 나타남.(서비스업, 9.2%p)

○ 직급별로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임원/관리직이 실무자보다 11.3%p 더 높아, 생성형 AI 도입이 상위 직급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줌.

– 이는 중간관리자급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짐.

○ 직종별로는 사무 · 전문직은 생산 · 기능 · 서비스직의 약 1.7배 수준으로 활용하여 업무 특성이 생성형 AI 활용의 핵심 요인임을 시사

○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활용률이 일관되게 하락하며, 세대 간 생성형 AI 활용격차를 확인

– 이러한 연령별 격차는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더욱 현저히 나타남.

□ 생성형 AI 미활용자를 대상으로 미활용 이유를 조사한 결과, 대–중소기업 모두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다소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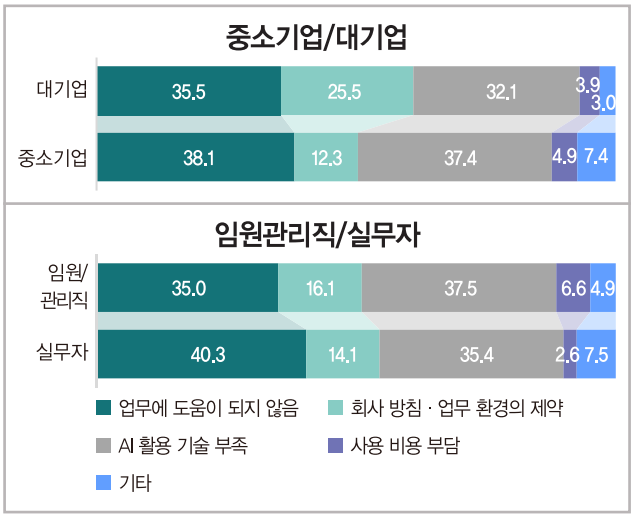
○ 대–중소기업 간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회사 방침 및 업무 환경 제약"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약 2배 수준

– 대기업일수록 보안 · 규정 등 조직적 제약이 생성형 AI 활용의 주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활용 기술 부족"을 미활용 이유로 선택한 비율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 근로자일수록 생성형 AI를 업무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나타냄.

[그림 3] 생성형 AI 미활용 이유: 기업 규모별 · 직급별 비교

(단위: %)



자료: 이창근 · 김용미(2026)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저자작성

□ 직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실무자는 "업무에 도움되지 않아서"가 최대 사유인 반면, 임원/관리직은 "활용 기술 부족"을 선택

○ 임원 · 관리직은 기술적 역량의 부족을 주된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실무자는 현재 업무에서 생성형 AI의 실질적 효용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됨.

– 별도로 실시한 분석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실무자들은 작업시간을 상당히 줄여주는 것으로 응답한 것을 감안하면, 활용자–미활용자 간에 업무에 적합한 형태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생성형 AI의 효용성 인식 역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한편 비용 부담을 미활용 이유로 선택한 비율은 임원 · 관리직(6.6%)이 실무자(2.6%)보다 높게 나타나, 임원 · 관리직이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근로자가 인식한 생성형 AI 활용시간은 대기업 5.6시간, 중소기업 5.4시간으로 0.2시간 차이에 불과하여, 실제 사용 강도는 기업 규모 간 거의 유사

[표 1] 생성형 AI 활용 시간 및 절감시간 (단위: 시간)

기업 규모	평균 근로시간	생성형 AI 활용 시간	생성형 AI로 절감된 시간
중소기업	38.7	5.4	8.0
대기업	40.8	5.6	9.3

주: 각 시간 변수는 주당 평균값 기준임.
자료: 이창근 · 김용미(2026)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저자작성

□ 생성형 AI 주1회이상 활용자 기준, 양적 생산성 지표(= 절약된 시간/(전체 근로시간+절약된 시간))를 계산하여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음.

○ 설문가중치를 적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p=0.318).

□ 생성형 AI 활용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문서 작성 · 커뮤니케이션 · 요약'과 '사실 · 정보 검색'에 집중되며, 상위 두 업무가 약 65~70%를 차지

○ 대기업은 문서 작성 · 커뮤니케이션 · 요약 비중이 중소기업보다 5.2%p 높아, 조직 내 보고 ·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정형화된 환경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더 집중되는 것으로 보임.

○ 컨텐츠 창작, 데이터 작업 · 시각화, 통역 · 번역 등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더 다양한 용도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담 인력이 부족한 환경에서 AI를 다목적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

○ 아이디어 생성 · 개발(3.5~3.6%)과 코딩(3.2~3.9%) 등 고숙련 · 창의적 업무에서의 활용 비율은 양 집단 모두 낮은 수준

[표 2] 생성형 AI 활용 업무 분야 (단위: %)

	중소기업	대기업
문서 작성 · 커뮤니케이션 · 요약 (이메일 작성, 회의록 작성 등)	42.7	47.9
일상적 관리 업무(행정 업무) 수행 (스케줄 관리, 문서분류 등)	10.6	10.2
통역 · 번역	8.9	7.9
사실 · 정보 검색	22.5	21.3
아이디어 생성 · 개발	3.6	3.5
코딩(프로그래밍)	3.2	3.9
데이터 작업 및 시각화(입력, 정리, 분석 등)	3.1	2.1
컨텐츠(영상, 오디오,이미지 등) 창작	4.0	1.9
기타	1.0	1.4

자료: 이창근 · 김용미(2026)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저자작성

Ⅲ. 생성형 AI 활용의 결정요인 분석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성형 AI 활용은 기업 규모에 따라 활용률 · 활용 방식 · 업무환경에서 뚜렷한 격차가 존재

○ 이는 근로자의 AI 활용 여부가 개인 역량 · 의지만이 아닌, 조직 차원의 방침 · 지원 · 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

□ 근로자의 생성형 AI 활용 여부의 결정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LPM)[1]을 활용해 실증 분석을 실시

$$Y_i = \beta_0 + \beta_1 \mathrm{X_i} + \mathbf{O_i}'\beta_2 + \mathbf{P_i}'\beta_3 + \mathbf{Z_i}'\gamma + \epsilon_i$$

○ 종속변수 Y_i는 근로자의 생성형 AI 주 1회 이상 활용 여부(더미변수)

1) 동일한 설명변수를 활용한 로짓모형을 추정하고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s, AME)를 산출하였으며, 주요 변수의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성이 LPM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

○ 핵심 설명변수 X_i는 기업 규모(대기업이면 1인 더미변수)

○ 업무 환경 변수 벡터 O_i는 기업의 생성형 AI에 대한 태도(범주형 변수, 없음(1), 금지(2), 제한(3), 권장(4)), 생성형 AI 관련 보조금 지원 여부(더미변수)

○ 개인특성 및 역량 변수 벡터 P_i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2](프롬프트의 기본 구조 이해 및 고차원적으로도 활용 가능하면 1인 더미변수), 개인의 생성형 AI 수용 태도(범주형 변수, 사용하지 않는다(1), 완전히 검증된 후 사용(2), 어느 정도 사례가 축적된 후 사용(3), 빨리 써보고 싶다(4))

○ 통제변수 벡터 Z_i는 성별, 연령대, 대학교졸업 이상 여부(더미변수), 산업, 직종, 직위, 근무지역(시도) 및 오차항 ϵ_i.

– 산업 및 지역 특성 등 변수들은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통제함.

– 오차항은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활용하여 계산

○ 본 분석에서 활용된 기업 환경 변수 등의 모든 변수는 객관적 기업 수준 자료가 아닌 근로자의 주관적 응답을 통해 측정된 인식 변수로, 해석 시 이 점을 유의할 필요

○ 또한, 본 분석 결과는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관측 가능한 변수들을 최대한 통제하였지만, 역인과성을 포함한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정된 계수를 인과적 효과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

□ **[표 3]의 (1)열은 핵심 설명변수인 대기업 여부만 포함한 기본 모형의 결과이며, (2)열은 업무환경, 개인역량 및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관측 가능한 요인을 통제한 확장 모형의 결과임. 이하 해석은 (2)열을 중심으로 서술**

□ **대기업 여부의 계수는 모형 (1)에서 0.138, 모형 (2)에서 0.040으로 두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임.**

○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 근로자에 비해 생성형 AI를 주 1회 이상 활용할 확률이 약 4%p 높은 것으로 해석됨.

□ **기업의 생성형 AI 활용 태도는 없음(기준범주) 대비 '권장'의 계수가 0.15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반면 '금지'와 '제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 이는 기업이 생성형 AI 활용을 단순히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근로자의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여줌.

□ **생성형 AI 관련 보조금 지원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이며, 지원을 받는 경우 근로자의 생성형 AI 활용 확률이 약 8.1%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의 계수는 0.235로, 본 분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

○ 프롬프트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고도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생성형 AI를 주 1회 이상 활용할 확률이 약 23.5%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생성형 AI 활용에 있어 개인의 기술적 역량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줌.

2) 이창근 · 김용미(2026)의 [표 2]에서 3~5번 항목의 응답을 1로 정의

□ 개인의 생성형 AI 수용 태도는 사용하지 않음(기준 범주) 대비 모든 범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며, 수용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효과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생성형 AI를 주 1회 이상 활용할 확률이 약 4.1%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는 20대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며, 감소폭이 점차 커지는 경향을 보임.

○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성형 AI 활용률은 낮아지며,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

□ 대졸 이상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생성형 AI 활용 확률이 약 7.6%p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회귀분석 결과

		(1)	(2)
대기업		0.138***	0.040**
		(0.020)	(0.018)
기업의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태도	· 금지		–0.018
			(0.054)
	· 제한		0.038
			(0.026)
	· 권장		0.155***
			(0.019)
지원 보조금			0.081***
			(0.018)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			0.235***
			(0.018)
개인의 생성형 AI 수용 태도	· 완전히 검증된 후 사용		0.214***
			(0.026)
	· 어느 정도 사례가 축적된 후 사용		0.308***
			(0.024)
	· 최대한 빨리 활용		0.400***
			(0.028)
여성			–0.041**
			(0.017)
30대			–0.067***
			(0.025)
40대			–0.188***
			(0.027)
50대			–0.225***
			(0.027)
60대 이상			–0.215***
			(0.028)
대졸이상			0.076***
			(0.018)
추가 통제변수		×	○
관측치		2,992	2,992
결정계수(R^2)		0.015	0.319

주: 괄호 안은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임. 기준범주는 기업의 생성형 AI 활용 태도(없음), 개인의 생성형 AI 수용 태도(사용하지 않음), 연령대(20대), 성별(남성)임. 추가 통제변수에는 산업, 직종, 직위, 근무지역(시도) 더미변수가 포함됨.
* p<0.10, ** p<0.05, *** p<0.01

자료: 이창근 · 김용미(2026)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저자작성

Ⅳ. 절감 시간의 활용과 생산성 전환 가능성

□ 대기업 근로자는 생성형 AI로 절약한 시간을 업무 생산성 제고에 재투자하는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휴식 · 개인 시간 확보에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 AI 도입이 장기적으로 기업 규모 간 생산성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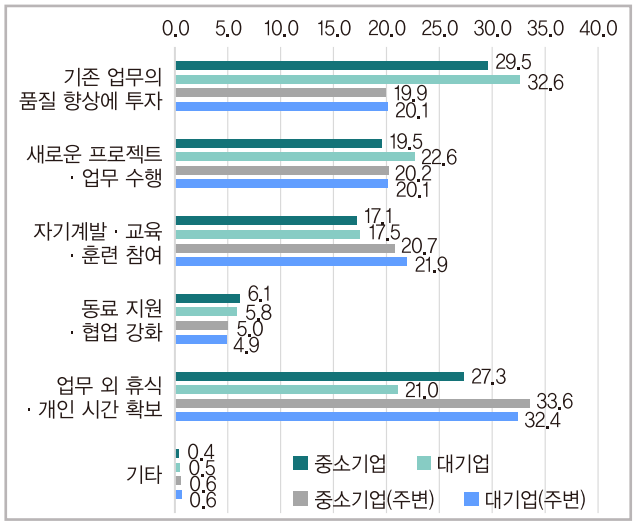
○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생성형 AI로 절감된 시간을 “기존 업무의 품질 향상에 투자”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절감 시간이 업무 효율 제고에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2순위 활용을 보면, 대기업은 “새로운 프로젝트 · 업무 수행”(22.6%), 중소기업은 “업무 외 휴식 · 개인 시간 확보”(27.3%)를 선택하여, 대기업은 절감 시간을 업무에 재투자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개인 시간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생성형 AI의 양적 생산성이 기업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감 시간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투입할 수 있는 환경 측면에서 대–중소기업의 차이점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임.

○ “자기개발 · 교육 · 훈련”과 “동료 지원 · 협업”은 양 집단 간 거의 차이가 없으며,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학습 · 협업 효과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4] 생성형 AI를 통한 절감 시간의 활용 (단위: %)



주: ‘중소기업’, ‘대기업’ 항목은 생성형 AI 활용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으로 절감된 시간을 주로 어떤 부분에 사용하십니까?”를 질문한 결과이며, ‘중소기업(주변)’, ‘대기업(주변)’ 항목은 생성형 AI 미활용자를 대상으로 “주변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관찰했을 때, 생성형 AI 활용으로 시간이 절감된다면 절감된 시간을 주로 어떤 부분에 사용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임.

자료: 이창근 · 김용미(2026)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저자작성

□ **생성형 AI 미활용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로 절약된 시간을 활용자가 어떻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응답 분포가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남.**

○ 생성형 AI 미활용자들은 절약된 시간의 사용처로 “업무 외 휴식 · 개인 시간 확보”를 1순위로 예상

○ 실제 활용자와 예상치 간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휴식 · 개인 시간 확보” 항목으로, 미활용자가 예상하는 정도가 실제 활용자 응답보다 6~12%p 높게 나타나는 반면, “기존 업무 품질 향상”은 실제 활용자가 미활용자 예상치보다 약 10~13%p 높음.

○ 미활용자들이 AI 도입의 결과로 예상하는 결과를 업무 재투자보다는 휴식 시간 확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생성형 AI 활용 정도와 역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절감된 시간을 부가가치 높은 활동 발굴에 투입할 가능성을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생산적 활용을 기업이 유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결정될 것임을 시사

□ **생성형 AI로 업무시간이 절감될 경우 회사 관리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의 예상을 조사한 결과, 대–중소기업 간 차별적인 양상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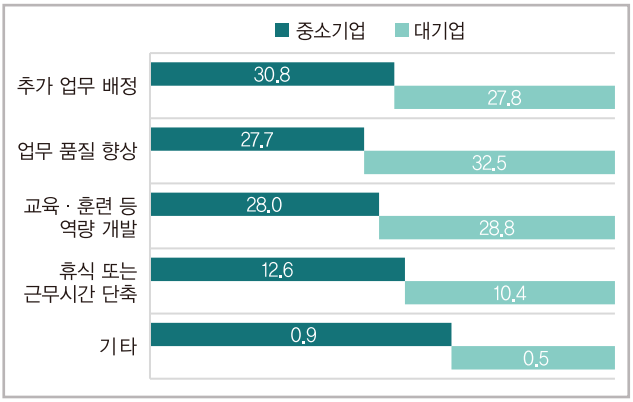
○ 중소기업 근로자는 관리자가 “추가 업무배정”이라는 응답이 1순위이며, 반면 대기업 근로자는 “업무 품질 향상에 활용”이라는 응답을 1순위로 꼽아 절약된 시간이 업무 고도화 방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함.

○ “휴식 또는 근무시간 단축”을 예상한 비율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다소 높아, 중소기업 근로자가 워라벨 개선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더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 “교육 · 훈련 등 역량 개발” 예상 비율은 대-중소기업 간 차이가 미미하여 양 집단 모두 역량 개발 방향의 대응 가능성을 유사하게 인식

[그림5] 생성형 AI에 의한 업무시간 절감 시 회사 관리자의 예상 대응

(단위: %)



자료: 이창근 · 김용미(2026)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저자작성

□ 중소기업 근로자는 생성형 AI로 절약된 시간이 추가 업무 배정으로 귀결될 것을 상대적으로 더 우려하는 반면, 대기업 근로자는 업무 품질 향상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 중소기업에서 AI 도입에 대한 근로자의 심리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소통과 신뢰 형성이 중요함을 의미

□ ‘생성형 AI 활용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업무량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 응답이 중소기업, 대-중소기업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업무량 증가를 예상하는 비율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4.6%p 높게 나타남. 이는 대기업 근로자가 생성형 AI 활용으로 절감된 시간을 업무 품질 향상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업무로 전환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해석됨.

○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관리자의 추가 업무 배정에 대한 우려(30.8%)가 대기업(27.8%)보다 높음에도, 실제 업무량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등 다소 상반된 태도를 보임.

[표 4] 기업규모별 생성형 AI 생산성 향상 시 업무량 증가에 대한 인식

(단위: %)

	중소기업	대기업
전혀 그렇지 않다	6.7	5.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7.5	25.5
보통이다	37.4	36.2
그런 편이다	25.6	29.2
매우 그렇다	2.8	3.8

자료: 이창근 · 김용미(2026)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저자작성

□ 이는 생성형 AI 도입의 1차 효과(시간 절감)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지만, 2차 효과(절감 시간의 생산적 재투입)는 조직 환경에 강하게 의존함을 시사하며, 단기적 활용률 격차가 장기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로 누적될 가능성을 내포

V. 생성형 AI 활용 정책 및 업무 환경 측면에서 대-중소기업 간 격차

1) 생성형 AI의 활용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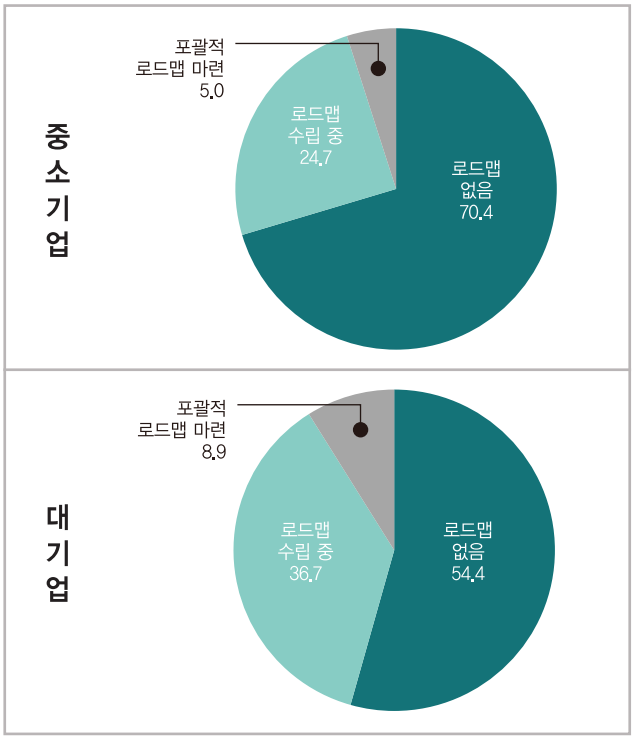
□ 생성형 AI 도입 로드맵을 보유하지 않은 비율은 중소기업 70.4%, 대기업 54.4%로, 양 집단 모두 체계적인 AI 도입 전략 수립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짐.

○ “포괄적 로드맵 마련” 비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물러, 생성형 AI 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된 기업은 아직 극소수에 불과

○ 또한, “로드맵 수립 중”과 “포괄적 로드맵 마련”을 합산한 전략 착수 비율은 대기업(45.6%)이 중소기업(29.7%)보다 15.9%p 높아, 대–중소기업 간 AI 전략 대응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줌.

○ 이러한 결과는 현재 중소기업의 생성형 AI 활용이 조직 차원의 전략적 대응보다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 활용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조직 수준의 전략 격차가 향후 기업 규모 간 생성형 AI 활용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림 6] 생성형 AI 로드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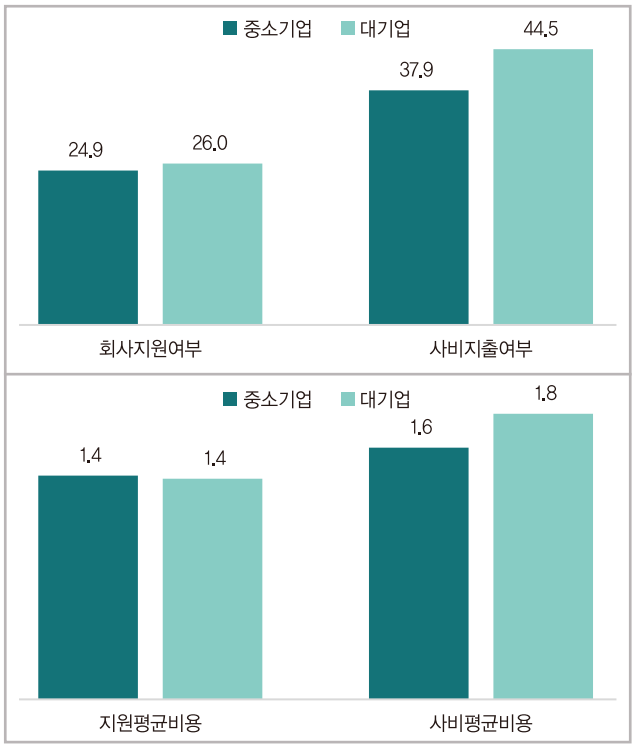
자료: 이창근 · 김용미(2026)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저자작성

□ 생성형 AI 회사 지원 구독률은 대기업 26.0%, 중소기업 24.9%로 두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음.

○ 반면 사비 지출 구독률은 대기업 44.5%, 중소기업 37.9%로, 양 집단 모두 회사 지원 구독률을 크게 상회하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6.6%p) 역시 회사 지원율 격차(1.1%p)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주목할 점은 대–중소기업 모두 회사 지원 구독율보다 사비 지출 구독율이 높다는 점으로, 현재 생성형 AI 활용이 조직 차원의 공식 지원보다 개인의 자발적 비용 부담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7] 생성형 AI 구독율 및 비용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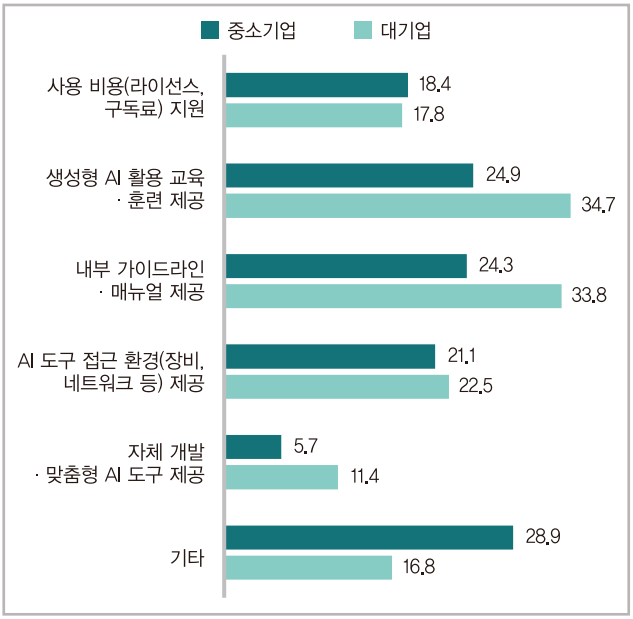
자료: 이창근 · 김용미(2026)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저자작성

□ 생성형 AI 활용 관련 회사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대기업의 지원 비율이 중소기업을 상회하며, 특히 교육 · 훈련과 내부 가이드라인 항목에서 양 집단 간 격차가 가장 두드러짐.

○ “활용 교육 및 훈련 제공”이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항목으로 나타남. 중소기업 근로자의 AI 활용 기술 부족이 미활용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된 앞선 결과를 고려하면, 교육 · 훈련 지원의 부재가 중소기업의 AI 활용 격차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내부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제공에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 대비 9.5%p 높게 나타나고, 자체 개발 · 맞춤형 AI 도구 제공에서도 대기업(11.4%)이 중소기업(5.7%) 대비 두 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업무 특성에 맞는 AI 도구를 내부적으로 구축 · 제공하는 인프라 역량 측면 및 조직 차원의 AI 활용 체계화 수준에서도 기업 규모별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

[그림 8] 생성형 AI 활용 관련 회사 지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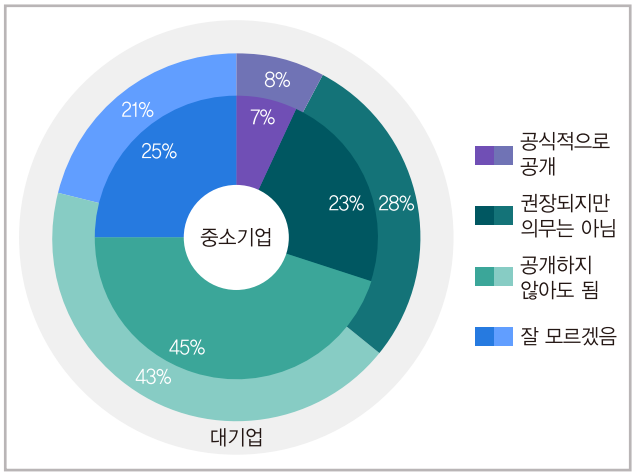


주: 복수응답 허용
자료: 이창근 · 김용미(2026)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저자작성

□ **생성형 AI 활용 결과물의 사용 여부 공개 정책과 관련하여, 대–중소기업 모두 “공개하지 않아도 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생성형 AI 활용 결과물에 대한 조직 차원의 공식적 공개 기준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됨.

[그림 9] 생성형 AI 활용 결과물의 사용 여부 공개 정책



자료: 이창근 · 김용미(2026)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저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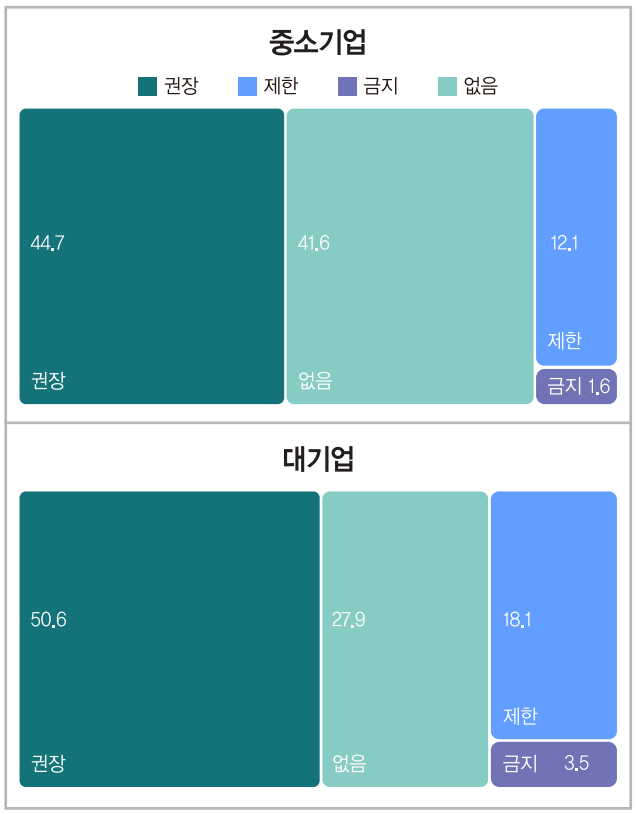
2) 생성형 AI 활용을 둘러싼 업무환경

□ **기업의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살펴본 결과, “권장” 비율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5.9%p 높아, 대기업이 생성형 AI 활용에 더 적극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주목할 점은 “없음” 비율이 중소기업(41.6%)이 대기업(27.9%)보다 13.7%p 높게 나타난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조직 차원의 생성형 AI 정책 공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여짐.

○ “제한”과 “금지”를 합산한 비율 역시 대기업이 중소기업 대비 7.9%p 높아, 대기업은 생성형 AI 활용 촉진과 함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 정책도 병행하는 등 생성형 AI 활용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조직 정책을 상대적으로 더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 생성형 AI에 대한 회사의 전반적 태도 (단위: %)



주: 복수응답 허용
자료: 이창근 · 김용미(2026)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저자작성

□ 한편,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를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은 "회사 관리자"(44.7%)와 "동료 구성원들의 합의"(43.6%)가 1 · 2순위를 차지하는 등 현장 · 팀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이 주를 이루는 반면,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1,2순위는 동일하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상위 부서 또는 본사"(33.5%)가 중소기업(19.5%)보다 14.0%p 높아 본사 주도의 조직 차원 공식 의사결정 구조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관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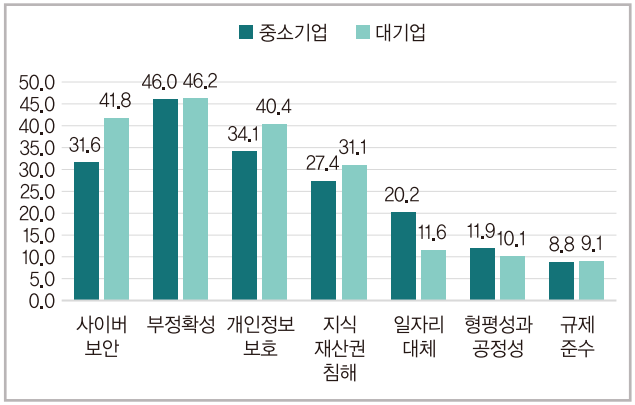
□ 생성형 AI 업무 활용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대–중소기업 모두 "부정확성" 이 각각 46.0%, 46.2%로 1순위를 차지하여, AI 결과물의 신뢰성 문제가 활용 확산의 가장 큰 장벽임을 확인

○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지식재산권 침해" 항목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기업일수록 보안 · 법적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반면 "일자리 대체" 우려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8.6%p 더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 근로자일수록 AI로 인한 고용 불안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체감함을 확인

○ "형평성과 공정성" 및 "규제 준수"는 대–중소기업 간 차이가 미미하여 양 집단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인식

[그림 11] 생성형 AI 업무 활용의 주요 장애 요인 (단위: %)



주: 복수응답 허용.
자료: 이창근 · 김용미(2026)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저자작성

□ 생성형 AI 활용 경험 · 노하우를 조직 내 공유하는 데 주저한 경험이 "자주 있다" 이상으로 대답한 근로자 비율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4.0%p 높게 나타나, 대기업 근로자일수록 생성형 AI 활용 경험 공유에 더 소극적인 경향을 보임.

○ 반면 "전혀 없다" 비율은 중소기업(16.4%)이 대기업(11.2%)보다 높아, 중소기업 근로자가 AI 활용 결과물 공유에 상대적으로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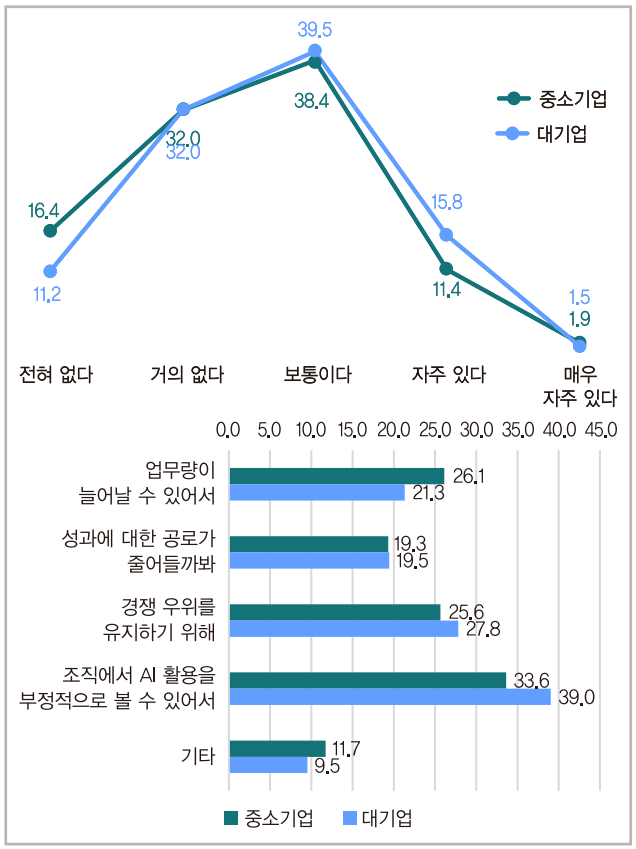
□ 생성형 AI 활용 경험 · 정보 공유를 주저한 가장 주된 이유로 대–중소기업 모두 "조직에서 AI 활용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서"가 1순위를 차지

○ 이는 조직 내 AI 활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경험 · 정보 공유의 주된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에서 그 경향이 더 강함을 의미

□ **"업무량 증가 우려"는 중소기업(26.1%)이 대기업(21.3%)보다 4.8%p 높아, 중소기업 근로자일수록 생성형 AI 활용이 추가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상대적으로 더 우려하는 경향을 보임.**

○ "경쟁 우위 유지"를 이유로 선택한 비율은 대기업(27.8%)이 중소기업(25.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그림 12] 생성형 AI 활용 경험 · 정보 공유하는데 주저한 경험 여부 및 공유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주: 하단 그래프는 복수응답 허용으로 응답 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이창근 · 김용미(2026)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저자작성

□ **팀(조직) 내 구성원 간 생성형 AI 역량 격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대–중소기업 모두 "보통 수준의 차이가 있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조직 내 AI 역량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인식이 양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

○ 다만 세부 응답 패턴에서는 기업 규모별 차이가 확인됨. 역량 격차가 크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대기업(33.9%)이 중소기업(26.8%)보다 7.1%p 더 높고, 격차의 차이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중소기업(24.1%)이 대기업(20.9%)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표 5] 팀(조직) 내 생성형 AI 역량 격차에 대한 인식 (단위: %)

	중소기업	대기업
전혀 차이가 없다	5.8	3.0
차이가 거의 없다	18.3	17.9
보통 수준의 차이가 있다	49.2	45.2
차이가 큰 편이다	23.1	30.3
매우 큰 차이가 있다	3.7	3.6

자료: 이창근 · 김용미(2026)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저자작성

□ **조직 내 생성형 AI 역량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 대–중소기업 모두 "AI 도구에 대한 관심도 · 학습 의지 차이"가 1순위를 차지하여,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개인의 자발적 학습 의지가 역량 격차의 핵심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대기업 근로자일수록 해당 인식이 더 강한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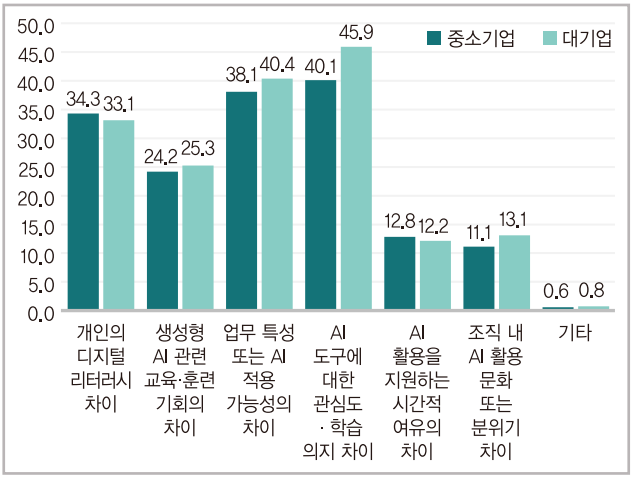
○ "업무 특성 또는 AI 적용 가능성의 차이"도 대–중소기업 모두 2순위로 나타나, 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 생성형 AI 활용 기회 자체가 달라진다는 인식이 양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확인

○ 그 다음으로는 “개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차이”, “생성형 AI 관련 교육 · 훈련 기회의 차이”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항목 모두 대–중소기업 간 응답 비율 차이가 미미하여 해당 요인에 대한 인식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유사한 것으로 확인

○ 종합적으로, 근로자들은 조직 내 AI 역량 격차의 원인을 조직 차원의 지원보다 개인의 학습 의지 · 관심도, 디지털 리터러시, 업무 특성 및 AI 적용 가능성 등 개인 · 업무 수준의 요인에서 주로 찾는 경향이 나타남.

○ 이는 교육 · 훈련 제공과 함께 구성원의 AI 학습 동기를 높이고 업무 환경 내 AI 활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의 조직문화 조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그림 13] 조직 내 생성형 AI 역량 격차의 주요 원인 (단위: %)



주: 중복응답 허용

자료: 이창근 · 김용미(2026)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저자작성

□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인식(1점: 일상적 업무 도구 ↔ 5점: 혁신적 시도)을 살펴본 결과, 대기업(3.36) · 중소기업(3.26), 임원 · 관리직(3.31) · 실무자(3.26) 모두 중간값(3점)을 소폭 상회하여 혁신적 시도로서의 인식이 다소 우세하나 중립에 가까운 수준임.

○ 기업 규모별 · 직급별 차이 모두 크지 않아 생성형 AI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 본 연구는 한국 임금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소기업 간 생성형 AI 활용 격차의 실태와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

○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대–중소기업 간 생성형 AI 활용 격차는 단순한 사용 빈도의 차이를 넘어, 조직 전략 · 지원 체계 · 업무환경 · 활용 방식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

○ 대–중소기업 활용률 격차는 한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OECD G7 국가에서도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패턴(OECD, 2025b)

□ 회귀분석 결과는 생성형 AI 활용 여부가 기업 규모 자체보다 조직환경(기업의 AI 권장 태도, 보조금 지원)과 개인 역량(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 AI 수용 태도)에 의해 보다 크게 설명됨을 보여줌.

○ 대기업 재직 여부와 생성형 AI 활용 간의 연관성(약 4%p)은 통제 전 13.8%p에서 대폭 축소되며, 이는 기업 규모 격차의 상당 부분이 조직 지원 및 개인 역량 차이를 통해 매개됨을 의미하고, 이 격차는 변화 불가능한 구조적 요인이 아니라 정책적 개입이 가능한 영역에 있음.

○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 보유 여부는 생성형 AI 활용 확률과 가장 강하게 연관된 변수 중 하나로, 역량 보유자가 미보유자에 비해 약 23.5%p 높게 나타나, 개인의 기술적 역량이 생성형 AI 활용의 가장 강력한 결정 요인임을 확인

□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성형 AI 활용을 제고하는 데 있어 역량 개발과 조직 환경 개선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함.

(1) 중소기업 대상 생성형 AI 활용 역량 강화 지원 체계 강화 및 취약계층 · 지역 격차 해소

□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이 생성형 AI 활용의 핵심 결정 요인임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생성형 AI 활용 교육 · 훈련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

○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LLM(Large Language Model) 출력의 품질이 프롬프트의 품질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기존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로는 충분히 포괄되지 않는 독립적 역량으로 논의(Federiakin et al., 2024)

□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교육 · 훈련 지원 격차가 가장 두드러지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보험 직업훈련 체계 내 생성형 AI 특화 과정의 비중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필요

○ 업무 유형별 · 직종별로 차별화된 활용 가이드라인 및 직무 · 산업 특성에 맞춘 실무형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사내 활용 사례 기반 학습 자원 등을 중소기업 근로자가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

○ 중소기업은 교육비용 부담과 인력 유출 우려로 교육 투자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보조금이나 바우처와 같은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용 부담을 낮춰줄 필요

– 교육받은 직원이 일정 기간 내 이직할 경우 비용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교육비 상환 조항(Pay-back clauses)' 도입을 검토(OECD, 2025a)

□ 중소기업 내 산업 · 지역별 AI 활용률 격차가 대기업보다 크게 나타나, 중소 제조업체,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이 AI 활용의 사각지대로 부상할 위험이 존재

○ 지역산업진흥기관 등 지역 거점 기관을 통한 생성형 AI 교육 인프라 확충, 온라인 기반 교육 플랫폼 활용 촉진 등을 통해 지역 간 접근성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

○ 특히 비수도권 · 제조업 중소기업 · 40대 이상, 여성 근로자 등 활용률 사각지대 집단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요구

○ 정부의 디지털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가 낮고 접근이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더 간소화하고 명확한 타겟팅 정책이 중요(OECD, 2025a)

□ 중소기업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시도는 현재 민 · 관에서 진행 중

○ 대한상공회의소는 재직자 AI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WORK.AI'를 운영하고 있으며(대한상의 보도자료, 2026),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AI훈련 확산센터'와 'AI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해 중소기업을 찾아가 맞춤 처방 · 훈련을 제공하고 공동훈련을 실시(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

○ 이러한 정책이 공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훈련 내용이 업종 · 직무별 실무 적용 중심으로 설계되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 · 환류하는 질 관리 체계의 병행이 필수적임.

– (2025.10월 기준) AI 훈련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 훈련사업장대비 6.9%, 전체 훈련인원 대비 3.9% 수준임.(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

※ 참고

□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재직자 AI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WORK. AI'를 운영(대한상의 보도자료, 2026)**

○ MS, SK AX, KT 등 9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여, 실제 기업 현장의 데이터 · 직무, AI 활용 사례 및 실무 노하우를 커리큘럼에 반영함으로써 즉각적 업무 적용이 가능하도록 고도화

○ 수도권에 집중된 AI 교육 인프라를 지방으로 확산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AI훈련 확산센터와 AI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고, 중소기업을 찾아가 맞춤처방 · 훈련 제공하고 AI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훈련을 실시(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

○ AI확산센터(경기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등 총 10개소)는 AI훈련과정을 개발하고 AI훈련 코치를 양성하는 전문기관으로, 관련 전문 인력을 통해 2만 5천개 지역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을 진단 · 처방하고 체계적 현장훈련(S-OJT) 등 맞춤훈련을 지원

○ AI공동훈련센터(총 20개소)는 지역 내 대기업, 거점 대학 등이 보유한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무상으로 AI특화훈련을 제공

(2) 중소기업 생성형 AI 도입 전략 수립 지원

□ **생성형 AI 도입 로드맵을 보유하지 않은 중소기업 비율이 70.4%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이 조직 차원의 생성형 AI 도입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진단 ·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필요**

○ 현재 고용노동부의 AI 훈련확산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진단 · 컨설팅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AI 도입 전략을 수립 · 점검할 수 있도록 표준 로드맵 템플릿 및 체크리스트의 개발 · 보급이 중요

□ **AI 활용 보조금 지원이 활용 확률을 약 8.1%p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중소기업 대상 생성형 AI 구독료 · 도구 도입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간소화하여 실수요층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 특히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공통 AI 플랫폼 · 데이터 인프라의 경우, 산업별 협회 · 공공기관 주도의 공유 라이선스 및 업종별 특화 AI 솔루션 공동 활용 모델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3) 생성형 AI 친화적 업무환경 및 생산성 전환 환경 조성

□ **대-중소기업 간 생성형 AI의 양적 생산성(절감 시간 기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절감된 시간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재투자하는 환경 측면에서 차이가 두드러짐.**

□ 중소기업 근로자가 절감 시간을 업무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활용 성과에 연동된 직무 재설계 및 성과 공유 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

○ 생성형 AI 도입의 목적과 절감 시간 활용 방향에 대한 노사 간 소통과 신뢰 형성이 선행되어야함.

○ 또한 조직 내 생성형 AI 활용 경험 · 노하우 공유를 저해하는 심리적 장벽(조직의 부정적 시선에 대한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한 내부 공유 문화 및 인센티브 체계 구축이 병행될 필요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18.). 「노동시장의 모두를 위한 「AI+역량 Up 프로젝트」 추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3.29). 「전국 어디서나 인공지능(AI) 훈련」, 30개 인공지능(AI) 훈련지원센터 선정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2026.1.30.). 「대한상의, '재직자 3만명 AX 인재' 키운다」

이창근 · 김용미(2026), 「생성형 AI와 기업의 생산성: 현실과 과제」, SGI브리프 제39호.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구 SGI).

Bick, A., Blandin, A., and Deming, D. J. (2026). "The Rapid Adoption of Generative AI," Management Science.

Brynjolfsson, E., Li, D., & Raymond, L. (2025). "Generative AI at work."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40(2), 889–942.

Cui, K. Z., Demirer, M., Jaffe, S., Musolff, L., Peng, S., & Salz, T. (2026). The effects of generative AI on high-skilled work: Evidence from three field experiments with software developers. Management Science.

Dell'Acqua, Fabrizio, Edward McFowland III, Ethan Mollick, Hila Lifshitz, Katherine C. Kellogg, Saran Rajendran, Lisa Krayer, François Candelon, Karim R. Lakhani (2026) "Navigating the Jagged Technological Frontier: Field Experimental Evidence of the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Knowledge Worker Productivity and Quality", Organization Science 37(2):403–423.

Federiakin D, Molerov D, Zlatkin-Troitschanskaia O and Maur A (2024). "Prompt engineering as a new 21st century skill". Front. Educ. 9:1366434.

Kergroach, S. and J. Héritier (2025), "Emerging Divides in the Transi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OECD Regional Development Papers, No. 147, OECD Publishing, Paris.

Noy, S., & Zhang, W. (2023). Experimental evidence on the productivity effects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Science, 381(6654), 187–192.

OECD (2025a), Generative AI and the SME Workforce: New Survey Evidence,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25b), AI adoption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ECD discussion paper for the G7, OECD Publishing, Paris

Peng, S., Kalliamvakou, E., Cihon, P., & Demirer, M. (2023). The impact of ai on developer productivity: Evidence from github copilot. arXiv preprint arXiv:2302.06590.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Office of Advocacy (2025), "AI in Business: Small Firms Closing In", Research Spotlight, September 24, Washington, DC: SBA Office of Advocacy.

국내 · 외 경제지표

1. 주요국 경제성장률

(단위: %)

	2023	2024	2025	2026	2027
한국	1.6	2.0	1.0	1.9	2.1
미국	2.9	2.8	2.1	2.3	2.1
중국	5.4	5.0	5.0	4.4	4.0
일본	0.7	-0.2	1.2	0.7	0.6
유로존	0.4	0.9	1.4	1.1	1.2

주 : 2025, 2026년은 IMF 전망치임

2. 주요국 환율

(단위 : 원)

	2023	2024	2025	'26. 3월	4월	5월
원/달러	1288.0	1472.5	1439.0	1530.1	1483.3	1507.9
원/100엔	912.3	948.8	922.2	959.3	923.4	946.6
원/위안	180.8	201.3	204.8	218.7	215.9	222.2
원/유로	1426.6	1528.7	1685.7	1733.4	1723.6	1754.5

주 : 말일 기준

3. 주요국 정책금리

(단위: %)

	2023	2024	2025	'26. 3월	4월	5월
한국	3.50	3.50~3.00	3.00~2.50	2.50	2.50	2.50
미국	4.50~5.50	5.50~4.50	4.50~3.75	3.75	3.75	3.75
중국	3.65~3.45	3.45~3.10	3.10~3.00	3.00	3.00	3.00
일본	-0.10	-0.10~0.25	0.50~0.75	0.75	0.75	0.75
유로존	2.50~4.50	4.50~3.15	3.15~2.15	2.15	2.15	2.15

4. 주요 원자재 가격

(단위 : USD/bbl, p)

	2023	2024	2025	'26. 3월	4월	5월
국제유가	82.1	79.6	69.4	128.52	105.70	103.15
CRB 선물지수	263.8	296.7	298.8	372.42	395.11	380.45

주1)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연평균, 월평균)
2) CRB 선물지수는 천연가스 · 금 · 구리 · 니켈 · 옥수수 · 밀 등 주요 원자재 선물가격 평균하여 산출(말일 기준)

| **발 행 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3층
| **홈페이지** sgi.korcham.net